

2023년 7월 2일(가해)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녹) 연중 제 13 주일 (교황 주일)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 안드레아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교황님 기도지향 - 7 월]



복음화 지향 : 성체성사의 삶

가톨릭 신자들이, 인간관계를 깊이 변화시키고 하느님과 모든 형제자매와의 만남을 열어주는 성체성사의 거행을 삶의 중심으로 삼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3주일이며 교황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묻혔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우리 시대의 예언자요 목자이신 교황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제1독서 열왕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4,8-11.14-16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이니, 그곳에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화답송 시편 89(88),2-3.16-17.18-19 (◎ 2ㄱ)
 ◎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6,3-4.8-11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복음 환호송 1베드 2,9 참조
 ◎ 알렐루야.

○ 너희는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니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위업을 선포하여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37-42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영성체송 시편 103(102),1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영성체 후 묵상

우리는 죄에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아버지나 어머니를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께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당신께 합당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명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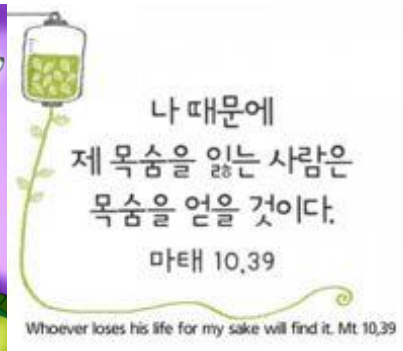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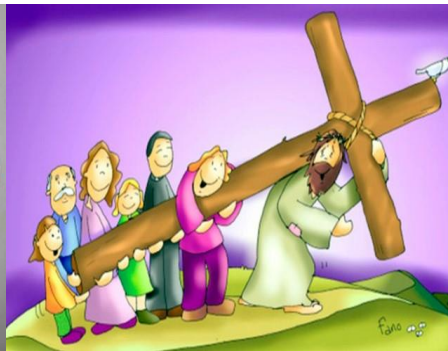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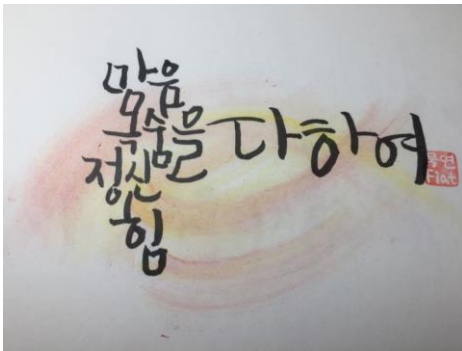


♣ 오늘의 복음 묵상 - 허규 베니딕토 신부 ♣

삼위일체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뽑으신 뒤에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과,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을 알려 주시는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여야 한다는 말씀은 가장 큰 계명의 첫 부분을 생각하게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마태 22,37)**. 어쩌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여야 하는지 묻는 데에 대한 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비교 대상이 됩니다. 실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비교입니다.

복음서에서 누누이 강조되는 첫째가는 제자의 길은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마태 16,24)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초대는 목숨을 잃고 얻는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으로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은 모두 예수님의 생애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하느님 사랑을 드러내시고 그분을 충실히 따르도록 가르치셨으며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신 생애의 요약과도 같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먼저 보여 주신 사랑에 대한 응답과도 같습니다. **신앙인은 이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며 삶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세례는 그 응답의 시작이고, 그 응답은 일상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지속되어야 합니다.



| 연중 제 13 주일 (교황 주일) 복음 필사 |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마태 10,40).

.....
.....
.....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당신 오른 편에 앉히시다.”
피에테르 데 그레베레 작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교황 주일과 베드로 성금 (Peter's Pence)

베네딕토 16 세 전 교황님께서서는 교황 재위 첫해에, 이 베드로 성금의 올바른 의미를 강조하셨습니다.

“베드로 성금은 모든 신자가 보편 교회를 위한 로마 주교의 자선 활동에 동참하고 있음을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 줍니다. 이러한 몸짓은 실질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교황과 이루는 친교의 징표이고 형제들의 필요에 대한 관심의 징표로서 강력한 상징적 가치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의 봉사는 특별한 교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이 베드로 성금을 6 월 29 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이나 이 대축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에 봉헌하고 있습니다. 교우분들의 기부는 아무리 작을지라도 상징적이고 큰 가치를 지닌 소중한 봉헌으로 교황님과의 구체적인 교감의 표시이며 교황님께서 항상 돌보시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관심의 표시입니다.

[우리 공동체 교황 주일 2 차 헌금 안내]

성당 입구에 준비된 별도의 헌금 봉투를 사용해 7 월 2 일 주일 미사 중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분들의 정성어린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7월 2일

교황주일



오늘은 교황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황님의 사목 활동을 돕고자 특별 헌금을 하는 날입니다.

CBCK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교황 주일 관련 안내

[이미지 클릭]

성 토마스 사도 대축일 (7 월 3 일)에 알아보는 토마스 사도의 생애

토마스 사도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 '쌍둥이'라고도 불렸습니다(요한 20,24). 갈릴래아 출신의 어부였던 그는 매우 강직하고 용감한 제자로 드러나기도 하고(요한 11,16), 부활하신 예수님을 불신하는 모습(요한 20,25)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자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요한 20,28) 하고 고백하였던 토마스 사도는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72 년경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르나르도 스트로치 - '성 토마스의 의심' 토마스 사도에 관한 글 [이미지 클릭]

제 3 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7 월 23 일) 맞이 엽서 보내기

우리 공동체는 올해로 3 년차를 맞는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사랑하는 부모님과 대부모, 은인들에게 엽서 보내기를 진행합니다. 성전 입구에 마련된 엽서에 감사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제출하시면, 공동체 차원에서 일괄 발송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교우분들은 정성스럽게 작성하신 엽서를 7 월 23 일(주일)까지 교무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가르멜 여자수도원에서 온 소식과 성물

우리 공동체에서 세례성사를 받은 후 한국으로 돌아가 현재 서울 가르멜 수녀원에 계신 소은정 안젤라 수녀님께서우리 성당을 위해 직접 만드신 성물을 기부하셨습니다. 첫 서원을 앞두고 있는 수녀님을 위해 정성어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가르멜 수도회 소개: <http://www.carmel.kr/bbs/page.php?hid=sub25-006>





| 연중 제 13 주일 (교황 주일) 주간실천 |

피조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⑥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만드는 '공정무역제품'을 구입하기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②

절수기기 사용 늘리기
→ 1.58kg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우리 공동체에서는 공동의 집인 지구와 환경생태 보호를 위해 일회용 제품 사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음식나눔, 다과 등의 행사시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안소근 실비아 수녀의 구약 종주 8강 신명기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약속된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의 마지막 말

성경과외 해주는 신부 [가톨릭성경통독 41 강] 사랑과 믿음은 결국 만나다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룻기

가톨릭신문

카이스트 출신의 과학자가 사제가 된 이유는?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김도현 바오로 신부

미사 참례자수

6월 18일	성인 47 아이 19	6월 25일	성인 42 아이 16
--------	-------------	--------	-------------

우리들의 정성 (6월 24일(토)~30일(금))

권요순	김요한	김정수	안영규	양명식	양홍석	이국원	이지영
전인철	허준	교무금 \$580 (10 가정) / 봉헌금 \$328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062786 / Account Number: 000027424

봉사자 안내 ※ 독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김우경 가브리엘라 - 전례분과)

	7월 2일 연중 제 13 주일 (교황 주일)	7월 9일 연중 제 14 주일
독서	이상명 다니엘, 이명진 이사악	이국원 필립보네리, 김미현 보나
예물봉헌	요한반	루카반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7월 2일) 요한반 → (9일) 루카반 → (16일) 마르코반 → (23일) 마태오반
- 미사 후 다과·친교(매월 첫째주 식사, 셋째주 간식): (7월 2일-식사) 마르코반 → (16일-간식) 마르코반
※ 매월 첫째주 식사나눔시 청년들을 위한 김치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미사성가 안내 (가사/악보 보기, 듣기, 다운로드 - 링크 클릭)

	입당	예물	영성체	파견
7월 2일	46 사랑의 송가	512 주여 우리는 지금	502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437 찬양하라 주님의 이름을
7월 9일	329 미사시작	342 제물 드리니	503 생명의 양식	77 주 천주의 권능과

♡ 김병기 토마스(3일, 마르코반) 형제님과 정유라 엘리자벳(4일, 어린이)의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교무금 납부 확인서 배포(7월 23일부터) 및 공동체 현황 및 재정보고(7월 23일) (문의: 이지영 아네스)